

이상네트웍스

NR

080010 기업분석 |

목표주가

-

현재주가(10/23)

6,060원

Up/Downside

-

2020. 10. 26

사람을 모으는 사업이 갖는 매력

News

국내 최대 전시회 "코리아빌드"를 운영하는 전시주최 기업: 이상네트웍스는 B2B 전자상거래, 전시주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연계된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 "e-sang.net"을 운영하며 B2B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철강제품을 수입해 가공 판매하는 공동구매 사업도 영위한다. 자회사 메세이상(지분율 69.4%)이 전담하는 전시주최 부문은 18개 산업분야에서 연간 50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Comment

오프라인 전시회가 다시 열린다: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국내 주요 전시장 운영이 재개됐다. 동사는 국내 최대 전시주최 사업자로 1천부스 이상의 대형 전시회를 다수 주최하고 있는데, 성수기인 3~6월, 9~10월에 방역지침이 강화되며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10월부터 "코리아빌드(舊 경향하우징페어)", 코베 베이비페어, 케이펫페어 등 대형 전시회들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적 회복이 예상된다.

Action

그래도 뽐은 오프라인에서 내야 제 맞: 비대면 마케팅이 각광받는 시대지만, 기업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전시회만큼 비용 효과성이 좋은 마케팅 수단은 거의 없다. 내년 초에는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전시회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2021~25년 국내 전시장의 대대적인 신증설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전시산업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전시장 부족 문제도 곧 해소될 전망이다. 매년 성장을 거듭해 온 플랫폼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500억원대에 불과하다. 재평가가 시급하다.

Investment Fundamentals (IFRS연결)

(단위: 십억원, 원, 백, %)

FYE Dec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38	39	51	54	58
(증가율)	-9.5	2.6	30.8	5.9	7.4
영업이익	4	7	8	7	8
(증가율)	100.0	75.0	14.3	-12.5	14.3
지배주주순이익	3	6	8	7	9
EPS	309	643	885	758	1,052
PER (H/L)	48.7/11.1	18.5/7.9	12.0/7.9	19.2/8.3	9.8/6.5
PBR (H/L)	2.1/0.5	1.5/0.6	1.2/0.8	1.5/0.7	1.0/0.6
EV/EBITDA (H/L)	25.9/4.5	12.0/5.3	9.1/6.6	19.9/11.9	10.1/7.2
영업이익률	10.5	16.9	15.6	12.7	12.9
ROE	4.5	8.7	10.8	8.4	10.5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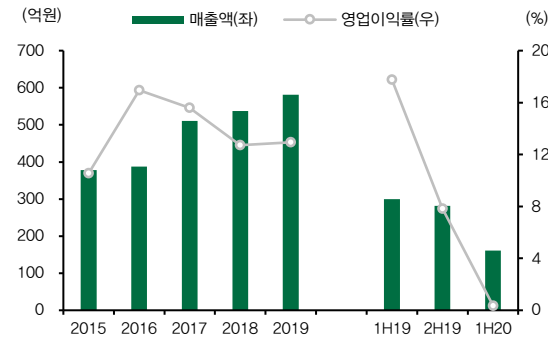
52주 최저/최고	5,530/7,850원
KOSDAQ /KOSPI	808/2,361pt
시가총액	546억원
60일-평균거래량	4,709
외국인지분율	20.2%
60일-외국인지분율변동추이	-0.3%p
주요주주	(주)황금에스티 외 3인 50.1%



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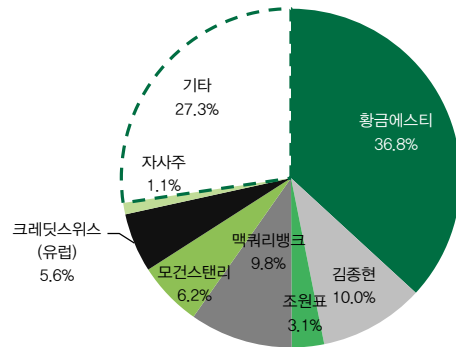
	1M	3M	12M
절대기준	-0.2	0.3	-22.3
상대기준	4.2	-0.5	-36.6

도표 1. 이상네트웍스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도표 2. 이상네트웍스 주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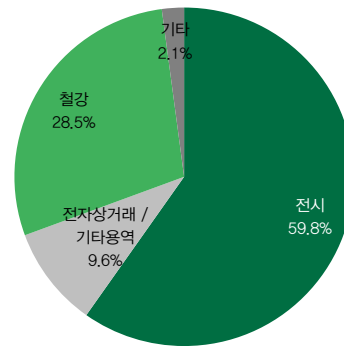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도표 3. 이상네트웍스 연혁

일자	내용
2000.02	(주)에니스티닷컴 설립
2001.06	B2B 전자결제 시스템 개발 및 국내 최초 서비스
2003.09	(주)이상네트웍스로 상호 변경
2005.09	코스닥 상장
2008.02	(주)경향하우징 인수합병
2011.08	제1회 코베 베이비페어 개최
2013.11	제1회 케이펫페어 개최
2015.02	경향하우징페어를 전국단위로 확장
2019.02	경향하우징페어 명칭을 코리아빌드로 변경
2020.07	수원매세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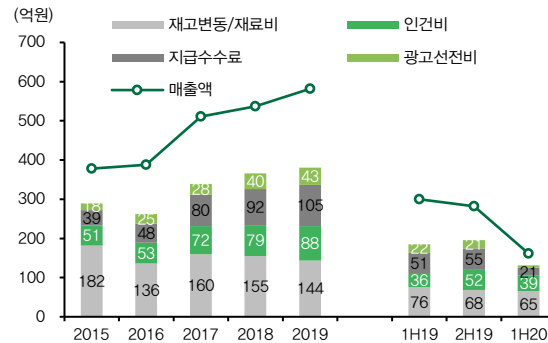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도표 4. 이상네트웍스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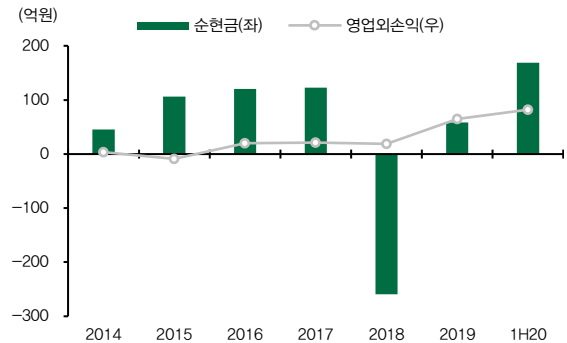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도표 5. 이상네트웍스 매출액과 주요 영업비용 추이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도표 6. 이상네트웍스 순현금과 영업외손익 추이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이제부터 좋아진다

B2B전자상거래,
철강 공동구매,
전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이상네트웍스는 B2B 전자상거래, 철강제품 공동구매, 전시주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스테인리스스틸 가공 전문기업 황금에스티가 2000년 설립한 철강 e-마켓플레이스 애니스틸닷컴이 모태다. 2008년 '경향하우징페어'를 주최하는 (주)경향하우징을 흡수합병하며 전시주최 사업에 진출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은 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플랫폼(e-sang.net)을 운영하고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보용보증, 매출채권 유동화 등을 지원하면서 거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한다. 공동구매 사업은 스테인리스스틸 등 철강제품을 수입, 가공해 국내 중소기업에 판매한다. 전시 사업은 자회사 메세이생(지분율 69.4%)이 전개하고 있으며, '코리아빌드(舊 경향하우징페어)', 코베 베이비페어, 케이펫페어 등의 대형 전시회들을 비롯해 18개 산업분야에서 연간 50회 이상의 전시회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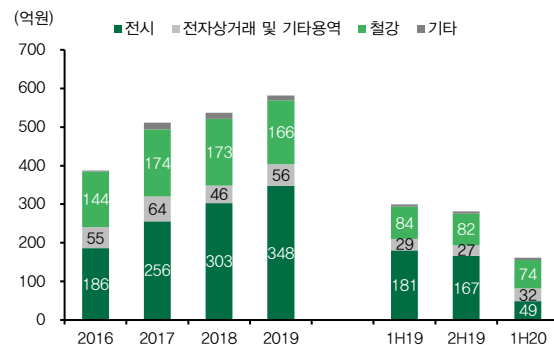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상반기
실적

1H20 실적은 연결 매출액 161억원(-46.2%), 연결 영업이익 1억원(-99.0%)으로 부진했다. 전시 사업 매출액은 전년동기비 72.7% 급감한 49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중 계획된 전시회 개최 일정이 대부분 연기 또는 취소됐기 때문이다. 공동구매 사업 매출액 역시 내수경기 부진 충격을 받아 전년동기비 12.1% 줄어든 74억원에 그쳤다. 반면 전자상거래 및 기타 용역 사업 매출액은 시장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1.4% 늘어난 32억원을 시현했다.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동기 39억원에서 1H20 69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금천구 가산동 구 사옥 처분이익 84억원이 반영된 영향이다.

전시회는
재개되고 원자재
가격은 반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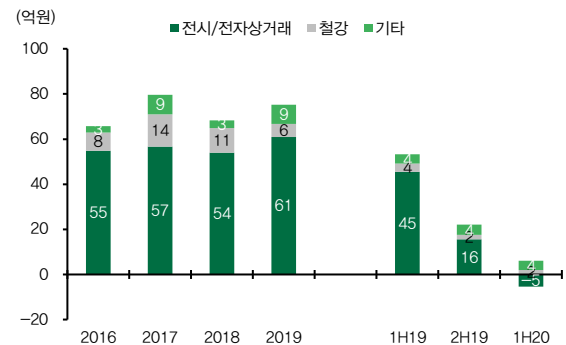
4Q20을 기점으로 사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 조정돼 전시장 운영과 행사 개최가 재개되고 있다. 동사는 10/15~18 일정으로 코리아빌드(부산 BEXCO)를 개최했고, 코베 베이비페어, 케이펫페어 등 다른 대형 전시회들도 10~11월 중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전시 사업 실적개선 속도는 국내최대 전시장 KINTEX에서 코리아빌드가 개최되는 내년 1분기에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동사가 운영권을 확보해 지난 7월 개관한 '수원 메세이' 전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운영이 되지 않았으나, 4분기부터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사업은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거래액 증가와 경쟁사 부실화로 인한 수혜를 입고 있다. 공동구매 사업 역시 전방산업 경기회복으로 매출액 반등이 기대된다.

도표 7. 이상네트웍스 부문별 매출액 추이



자료: 이상네트웍스, DB금융투자

도표 8. 이상네트웍스 부문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이상네트웍스, DB금융투자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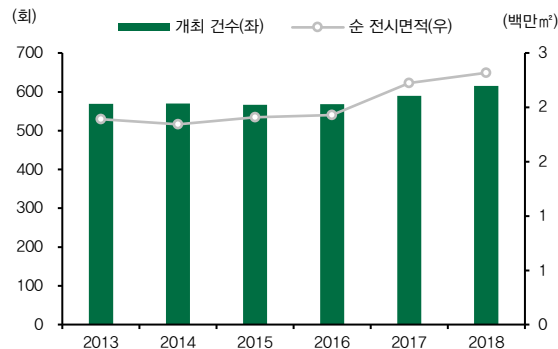
전시회는
비용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마케팅 수단

이상네트웍스의 전시 사업 매출액은 2016년 186억원, 2017년 256억원, 2018년 303억원, 2019년 348억원으로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려 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외형이 절반 이하로 축소됐지만, 우리는 동사 전시 사업의 장기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전시회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매우 우수한 마케팅 수단이다. 방문 세일즈를 하면 출장과 고객 접촉에 적잖은 비용이 들지만, 전시회에 참가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고객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입장에서든 관심분야의 기업과 제품들을 한 곳에서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다.

전시회의 규모가
수익성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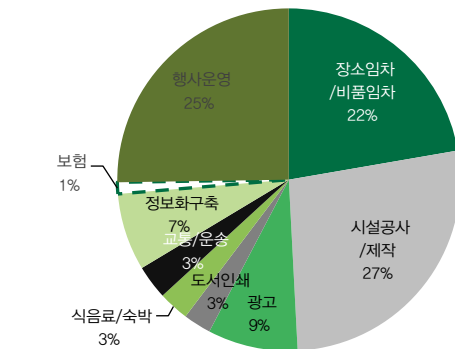
전시주최 기업은 부스 판매에서 매출액 대부분을 창출한다. 일반적으로 1부스는 3m*3m 크기로 제공되고, 전시회의 인지도나 특성, 인테리어 제공 여부에 따라 1부스당 80~280만원의 비용이 부과된다. 부스 수가 늘어나면 참여기업과 참관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해 수익성이 높아진다. 동사는 코리아빌드, 케이팻페어, 코베 베이비페어 등 1,000부스 이상의 대형 전시회를 다수 주최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빌드, 인테리어디자인코리아 등 비슷한 성격의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 VR EXPO 등 참관객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규 전시회도 지속 발굴하고 있다.

도표 9. 꾸준히 성장 중인 한국 전시 산업



자료: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통계조사』, DB금융투자

도표 10. 전시주최 사업자 평균 지출 구성



자료: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통계조사』, DB금융투자

전시장도 늘어난다

앞으로 5년 간
크게 늘어날
국내 전시면적

국내 전시 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들은 전시장 부족이다. 2019년 기준 주요 전시장 가동률은 60%를 상회해 사실상 완전가동 상태에 도달했으며, 특히 COEX를 비롯한 수도권 전시장 부족이 극심한 상태이다. 다행히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전시장의 대규모 신설, 확장 계획이 예정돼 있다. 대전 국제컨벤션센터(10,020㎡), EXCO 제2전시장(10,500㎡), 울산전시컨벤션센터(8,000㎡) 등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KINTEX 제3전시장(70,090㎡), BEXCO 제3전시장(22,638㎡), 제2코엑스(70,000㎡) 등 초대형 전시장들이 KDI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 2025년 내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도표 11. 국내 주요 전시장 및 개장 예정 전시장 현황

(단위: m²)

구분	지역	전시장	개장연도	전시면적	구분	지역	전시장	개장연도	전시면적
서울/인천/경기	서울	COEX	1988	36,007	서울/인천/경기	서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23E	15,000
	서울	SETEC	1999	7,948		서울	제2 COEX	2025E	100,000
	서울	aT센터	2002	7,422		고양	KINTEX 3전시장	2023E	70,000
	인천	송도 ConvensiA	2008	17,021		성남	백현지구마이스단지	미정	8,000
	고양	KINTEX	2005	108,566	강원	춘천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23E	10,950
	수원	수원 컨벤션센터	2019	7,877	대전/충남/충북	대전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21E	7,500
	수원	수원메세	2020	9,080		천안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2023E	9,000
대전/충남/충청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2008	2,520		청주	충북청주전시관	2023E	10,000
대구/경북	대구	EXCO	2001	22,159	대구/경북	대구	EXCO 제2전시장	2021E	15,000
	구미	GUMICO	2010	3,402	부산/울산/경남	부산	BEXCO 제3전시장	미정	22,638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014	2,273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E	8,000
부산/울산/경남	부산	BEXCO	2001	46,380	광주/전남/전북	여수	여수국제컨벤션센터	미정	미정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2005	9,375	제주	제주	IICC 제2센터	2022E	5,000
광주/전남/전북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05	12,027	전시면적 합계				281,088
	군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014	3,697					
제주	제주	IICC	2002	2,395					
전시면적 합계				298,149					

자료: 전시산업진흥회, 한국경제신문, DB금융투자

사업 다각화로
국내외 전시장
운영사업 진출

이상네트웍스는 수도권 전시장 부족 문제에 대응해 KCC가 출자한 민영컨벤션센터 수원메세(9,080m²) 운영권을 확보했다. 코로나19로 개관이 늦어져 8월까지 행사 개최 수가 4회에 그쳤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점진적인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 수원메세의 정상가동이 이뤄질 경우 연간 65억원 내외의 신규 매출액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편으로 KINTEX와 동사의 합작법인인 KINEXIN(동사 지분율 49.0%)이 인도 전시·컨벤션센터 IICC의 공식 운영을 맡아 올해 연말에 전시장 개관을 앞두고 있다. IICC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KINTEX 3배 규모의 국제 전시장으로, 향후 20년 간 KINEXIN이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도표 12. 교통편의성이 우수한 수도권 전시장 수원메세



자료: 이상네트웍스, DB금융투자

도표 13. 올해 12월 개관 예정인 거대 전시장 인도 IICC



자료: 이상네트웍스, DB금융투자

전자상거래와 공동구매 사업도 개선

거래액 감소와
경쟁심화를 겪은
B2B 전자상거래
시장

이상네트웍스가 운영하는 'e-sang.net'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 기업간 상거래는 발행어음에 기반한 오프라인 거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1년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전자상거래 플랫폼(e-마켓플레이스)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에 대출보증과 담보용보증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단기間に 전자상거래 산업의 급격한 외형성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1년 이후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액 감소와 업체간 수수료 경쟁 심화로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이다. 2019년 신보의 대출보증 및 담보용보증 공급액은 4,2조원으로, 2011년의 7.6조원 대비 약 45% 감소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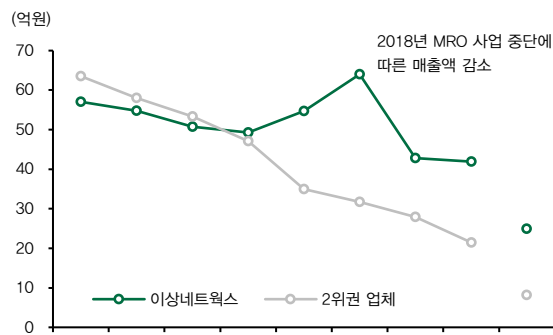
거래액 증가와
경쟁 완화에
따른 매출 회복
진행 중

현재 14개사가 신보와 연계한 e-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상네트웍스는 30% 중반대의 e-마켓플레이스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선도기업이다. 동사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은 40억원 내외로 크지 않지만, 초기 플랫폼 구축 이후에는 유지보수와 콜센터 운영 외에 추가비용이 들지 않아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 년 동안 2위권 업체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동사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다. 올해 하반기는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e-마켓플레이스 거래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10%대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면 동사에
유리

공동구매 사업에서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 수입한 스테인리스스틸 판재를 절단 가공해 유통한다. 국산 판재류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동사의 e-마켓플레이스 채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 매출액은 166억원으로 전사 매출액에서 3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으로 이익 기여도가 크지 않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진으로 10% 이상 감소했다. 하반기는 내수수요 회복과 STS 가격 반등에 힘입어 매출액과 수익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4. 이상네트웍스와 경쟁사 E-마켓플레이스 매출액 추정



자료: DB금융투자

도표 15. 원자재 가격 반등으로 공동구매 수익성 개선 예상



자료: KoreaPDS, DB금융투자

500억원대 시가총액에 머물기엔 아깝다

성장성 좋고
재무도 우수한데
이 주가는
너무하다

10월부터 코리아빌드, 코베 베이비페어 등 동사의 주요 전시회들이 속속 재개되고 있지만, 성수기가 지난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하향된 것이 약간 아쉽다. 단기 실적보다는 내년을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년 2월 3,000부스가 넘는 초대형 전시회인 코리아빌드 KINTEX를 앞두고 참관객 수 제한 등의 조치가 추가로 완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2019년 수준의 외형과 수익성을 회복한다면 현 시가총액(약 540억원)에서 동사 P/E는 6배 밑으로 내려간다. 재무구조도 우수하다. 순현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관계사 인터컨스텍에서 들어오는 지분법이익도 작지 않다. 전시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지금이 동사를 매수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도표 16. 이상네트웍스 주요 재무지표 추이

(단위: 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1H19	2H19	1H20
매출액	378	388	511	537	582	300	282	161
(%YoY)	-9.5	2.6	31.8	5.2	8.2	6.9	9.6	-46.2
- 영역사업	199	241	320	349	404	210	194	82
* 전시사업	n/a	186	256	303	348	181	167	49
* 전자상거래/기타영역	n/a	55	64	46	56	29	27	32
- 철강사업	167	144	174	173	166	84	82	74
- 기타사업	12	3	17	16	12	6	6	6
매출원가	269	260	344	364	391	185	206	115
매출총이익	109	128	167	174	191	115	76	46
(%매출총이익률)	28.8	32.9	32.8	32.3	32.8	38.2	27.0	28.6
판매비와관리비	69	62	88	105	115	61	54	46
영업이익	40	66	80	68	75	53	22	1
(%YoY)	61.2	64.9	21.3	-14.3	10.3	1.1	41.5	-99.0
(%영업이익률)	10.5	16.9	15.6	12.7	12.9	17.8	7.8	0.3
- 영역사업	40	55	57	54	61	45	16	-5
- 철강사업	1	8	14	11	6	4	2	2
- 기타사업	-1	3	9	3	9	4	4	4
영업외손익	-9	20	21	19	65	7	57	82
- 이자손익	2	2	1	0	-6	-3	-3	0
- 지분법손익	-5	17	20	30	68	10	58	9
- 기타손익	-6	1	0	-11	2	1	2	73
세전이익	31	86	101	87	140	61	79	82
법인세	4	24	21	23	26	14	12	18
지배주주순이익	28	58	80	68	95	39	56	69
EBITDA	47	72	87	78	97	64	34	12
CAPEX	4	2	17	470	10	3	6	1
순현금	106	120	123	-260	59	-81	59	169
순운전자본	109	95	148	262	208	253	208	113

자료: 이상네트웍스, DB금융투자

대차대조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28	29	36	44	70
현금및현금성자산	7	11	12	7	2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	6	12	7	6
재고자산	7	6	7	9	11
비유동자산	42	53	56	93	84
유형자산	10	11	12	48	46
무형자산	16	18	19	18	18
투자자산	12	18	18	25	16
자산총계	70	81	92	137	155
유동부채	7	7	9	20	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	2	3	3	3
단기차입금및단기차	3	2	3	15	9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24
비유동부채	0	0	1	27	4
사채및장기차입금	0	0	0	24	0
부채총계	7	7	10	47	47
자본금	5	5	5	5	5
자본잉여금	27	27	27	27	27
이익잉여금	33	37	45	51	64
비지배주주지분	0	4	6	5	12
자본총계	63	74	83	90	108

현금흐름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현금흐름	8	6	3	6	10
당기순이익	0	0	0	0	0
현금유출이없는비용및수익	2	3	4	6	11
유형및무형자산상각비	1	1	1	1	2
영업관련자산부채변동	5	-1	-3	1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	4	1	-5	5	2
재고자산의감소	1	1	0	-3	-2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1	0	0	0	-1
투자활동현금흐름	-3	0	-3	-45	8
CAPEX	0	0	2	47	1
투자자산의순증	0	-4	2	-3	15
재무활동현금흐름	-1	-1	0	34	0
사채및차입금의 증가	-1	-1	1	36	-5
자본금및자본잉여금의증가	0	0	0	-1	0
배당금지급	0	0	0	-1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	4	5	0	-4	17
기초현금	3	7	11	12	7
기말현금	7	11	12	7	25

자료: 이상네트웍스, DB 금융투자 주: IFRS 연결기준

손익계산서

12월 결산(십억원)	2015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	38	39	51	54	58
매출원가	27	26	34	36	39
매출총이익	11	13	17	17	19
판매비	7	6	9	11	12
영업이익	4	7	8	7	8
EBITDA	5	7	9	8	10
영업외손익	-2	2	2	2	6
금융손익	0	0	0	0	-1
투자손익	-1	2	2	3	7
기타영업외손익	-1	0	0	-1	0
세전이익	3	9	10	9	14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	6	8	6	11
자배주주지분순이익	3	6	8	7	9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0	0	0	0	2
총포괄이익	3	6	8	10	8
증감률(%YoY)					
매출액	-9.5	2.6	31.8	5.2	8.2
영업이익	61.2	64.9	21.3	-14.3	10.3
EPS	10.7	108.0	37.6	-14.3	38.7

주: K-IFRS 회계기준 개정으로 기존의 기타영업수익/비용 항목은 제외됨

주요 투자지표

12월 결산(원, 배)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당지표(원)					
EPS	309	643	885	758	1,052
BPS	7,007	7,821	8,531	9,420	10,650
DPS	0	50	100	0	100
Multiple(배)					
P/E	23.0	12.4	9.9	9.8	6.8
P/B	1.0	1.0	1.0	0.8	0.7
EV/EBITDA	11.5	8.8	8.3	12.5	7.3
수익성(%)					
영업이익률	10.5	16.9	15.6	12.7	12.9
EBITDA마진	12.3	18.7	17.0	14.6	16.8
순이익률	7.0	16.0	15.8	11.8	19.6
ROE	4.3	9.1	10.3	7.4	11.5
ROA	3.9	8.2	9.3	5.5	7.8
ROIC	8.1	11.3	13.3	6.6	6.2
안정성및기타					
부채비율(%)	10.9	10.0	11.6	52.6	43.6
이자보상배율(배)	98.5	203.9	134.0	20.6	7.7
배당성향(배)	0.0	7.1	11.0	0.0	7.9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자의견 비율 (2020-10-07 기준) - 매수(88.8%) 중립(11.2%) 매도(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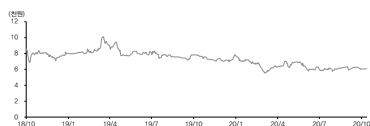
■ 기업 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을 기준으로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 업종 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을 기준으로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이상네트웍스 현주파 및 목표주가 차트



최근 2년간 투자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일자	투자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일자	투자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	-------	------	--------------------	----	-------	------	--------------------